



"말씀과 성찬의 식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연중 제6주일

2025년 2월 16일 / 제677호

성 당: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Office Hour: 화·목·금·주일 9AM - 1PM
E-mail: office@tvkcc.org / 홈페이지: www.tvkcc.org

사무실: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c/o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TEL 925 - 871- 9746

미사	교중 미사	주일 오전 9시 30분
	English Mass	주일 오전 11시
	평일 미사	화·목·금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주일 / 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5분	
유아세례	사무실로 문의	

주일 학교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신심단체	레지오 마리아: 주일 / 평일미사 전후
	울드레야: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재속 프란치스코: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해설 김지용 제1독서 이준혁 제2독서 Emiliana Lee / 입당 37 봉헌 211, 513 성체 188, 166, 특송 파견 300

입당 송 | 시편 31(30),3-4 참조

하느님,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체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체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주소서.

제1독서 | 예레 17,5-8

화답 송 | 시편 1,1-2.3.4와 6(◎ 40[39],5ㄱㄴ)

◎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 행복하여라! 악인의 뜻에 따라 걷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사람. ◎
-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제때에 열매 맺고, 잎이 아니시들어, 하는 일마다 모두 잘되리라. ◎

-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날리는 검불 같아라. 의인의 길은 주님이 아시고, 악인의 길은 멸망에 이르리라. ◎

제2독서 | 1코린 15,12.16-20

복음환호송 | 루카 6,23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

복음 | 루카 6,17.20-26

영성체송 | 시편 78(77),29-30 참조

그들은 실컷 먹고 배불렀네. 주님이 그들의 바람을 채워 주셨네.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네.

[주일학교 및 영어미사 안내]

2월 16일	주일학교 NO	Combined Mass
2월 23일	주일학교 YES	Fr. Gerald
3월 02일	주일학교 YES	Fr. Augustine
3월 09일	주일학교 YES	



“기도 부탁드립니다.”

Yong Ah Lee, 윤정의 알폰소, 박길순 수산나, 이순옥 데레사, 김난수 로사, 주종남 바오로, 이동식 토마스, 김정희 데레사, 정종락 필립보, 배예흠 요한사도, 배비임 알비나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역설을 살아가는 법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에 꽤 잘 어울리는 답변 가운데 하나가 ‘역설을 살아가신 분’이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지만 그다지 영광스럽게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혼인도 아직 치르지 못한 처녀에게 잉태되셨으니까요. 또 태어나신 예수님 곁에는 당시 그다지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던 목동들을 비롯해, 심지어 동물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어부나 세리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수치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을 주었던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고, 모욕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말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의 삶을 ‘실패한 삶’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실패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복음은, 역설이 예수님 삶의 방식일 뿐만 아니라 그분 가르침의 요체 중 하나라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가난하고 굶주리며 미움받고 울고 있는 이들은 행복하고, 오히려 부유하고 배부르며 웃고 있는 이들이 불행하다는 가르침은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역설은 우리에게 한 가지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하느님의 행복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이 행복하다고 할 때 사용되는 행복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마카리오스(μακάριος)’입니다. 원래 마카리오스는 신들, 부자, 권력자 처럼 모든 것이 풍요로워서 근심이 없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이 단어를 전혀 반대의 뜻으로 사용하십니다. 풍요로움이 아니라 빈곤함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 준다고 말

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설이 갖는 독특한 특징을 이해해야 합니다. 역설은 상식적으로는 부조리하지만 직관적으로는 옳은 모순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설은 우리가 우리의 상식, 우리의 부유함, 우리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눈에는 결핍, 모욕, 실패로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채울 때 삶의 참된 실체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설이 주는 행복함을 잃어버릴 때, 그럼으로써 상식의 세계로 넘어가 버릴 때, 우리는 변영 신학과 같은 영적인 천박함에 빠지게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본질인 겸손함과 고통을 잊어버린 채 세상의 부귀영화에 눈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이 품고 있는 역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가난과 겸손은 비참과 비굴의 동의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삶 자체에 깃든 풍요로움에 대한 감각을 잊게 되었던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예수님의 역설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김민 요한 신부 |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2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사제성도와 수도 성도

교회 공동체가, 사제 생활과 수도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에 봉사하라는 부르심을 받는 젊은이들의 바람과 의문을 환영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p>김수정 REALTOR® Soo Jung (Julia) Kim KELLERWILLIAMS DRE 02049482 925.416.9249 kw julia.kim@kw.com</p>	<p style="text-align: center;">대 건 한 의 원 한의학 박사 이준 침, 안약, 체중조절, 통증조절, 체질과별, 건강상담 6990 Village Pkwy #212 Dublin, CA 925-765-9755</p>	<p style="text-align: center;">STEVE G KIM DDS Family & Cosmetic Dentistry Dr. 김진만 치과병원 111 Deerwood Rd. Suite350 San Ramon, CA 94583 925-718-8970 / sgkdental@gmail.com www.sgkdental.com</p>	<p style="text-align: center;"> STAR태권도 STAR TAEKWONDO 跆拳道 하성곤 요제프 (925)404-9765 1490 N. Vasco RD, Livermore StarTaeKwonDo.com MasterHa@StarTaeKwonDo.com</p>
<p> N² ART & DESIGN Private and Group Art Lesson 650-766-0972 n2artndesign.com n2artndesign@gmail.com</p>	<p style="text-align: center;">부동산 거래 필수 에이전트! 탐탁 부동산 TOM TAHK / 토마스 408-499-6543 / realtor.tahk@gmail.com *탐탁하다: [형용사] 모양이나 태도, 또는 어떤 일 따위가 마음에 들어 만족하다.</p>		<p style="text-align: center;">미술교실 전통민화 · 수채화 · 드로잉 · 아크릴화 모던민화 초보자들도 쉽게 시작할수 있도록 기초부터 차근차근 지도해 드립니다 Cell (925)818-0770 fremontart@yahoo.com</p>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 함께 “교리 문해력” 높이기

8. 성경의 해석자이신 성령

글/안효철 디오니시오 신부

신학생 시절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는 천주교 신자들은 개신교 신자들에 비해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성경만을 계시 진리의 원천으로 삼는 개신교와 달리 우리는 성경 외에도 배우고 알아야 할 것들이 많아 그렇다고 핑계를 댈지도 모르지만, 애초에 저부터도 신학교 입학 전까지는 성경 전체를 읽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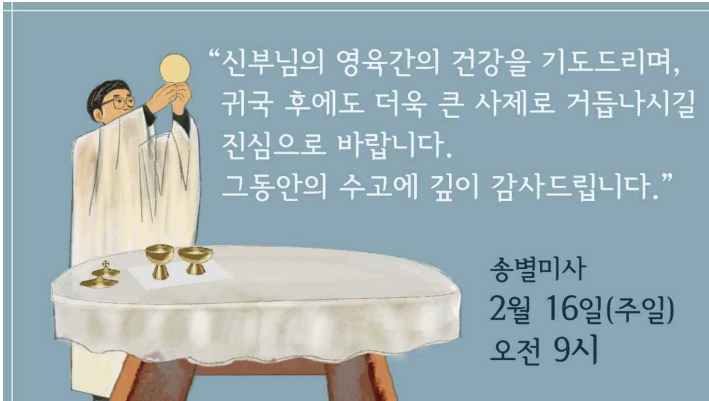
우리 교구는 매년 성경 전체를 통독하는 말씀살기 프로그램을 비롯해 하느님 말씀을 가까이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자주 많이 읽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중요해지는 것은 그 의미를 새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책이며, 이미 고정된 문자의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졌지만 하느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로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 있는 말씀이며, 그래서 살아 계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십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08항). 애초에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살아 있는 말씀이기에 성경은 늘 해석이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에게 말씀하셨기에 바로 그 말씀을 듣고 기록한 인간, 곧 성경 저자들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성경의 의미는 오랜 전통에 따라 자구적 의미와 영성적 의미로 구분되는데, 자구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

합니다. 성경 저자는 제한된 상황에서 그 시대와 문화의 여러 조건들에 따라 당시의 일반적인 문학 유형들을 이용하여 성경을 저술하였기에, 그들의 시대와 문화의 상황, 당시의 일반적인 문학 유형이나 사고 방식, 서술 방식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계시 현장 12항). 올바른 해석 원칙 아래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저자가 본래 의도한 의미를 찾고 결과적으로 하느님께서 의도하신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은 저자가 의도했던 자구적 의미와 함께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이해되는 영성적 의미(영성적 의미는 다시 세 가지로 세분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 117-118항 참조)가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약성경의 말씀들이 새롭게 이해되었던 것처럼. 성경은 ‘죽은 문자’로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하느님께서 의도하신 더 깊은 의미가 나중에 밝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의미를 올바르게 알아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11항). 성령의 영감으로 씌여진 성경은 오직 성령의 작용으로 온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경에 영감을 주신 성령을 따르는 성경 해석을 위해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1) 성경 전체의 내용과 단일성, 2) 전체 교회의 살아 있는 성전, 3) “신앙의 유비”에 유의할 것. 각각의 기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p>CPA 조미정 (카타리나) 조미정 공인회계사무소 6602 Owens Dr. #200 Pleasanton, CA 94588 Tel) 925-803-0200 jenny@jchocpa.com</p>	<p>새 차 13개 자동차매장에서 도와드립니다 HANLEES AUTO GROUP</p>  <p>HILLTOP FREMONT FAIRFIELD NAPA DAVIS SUE CHO CELL: 530-220-2848</p>		<p>PARK CHIROPRACTIC Dr. Joon Park Office (925) 355-1450 Cell (925) 997-1257 7027 Dublin Blvd, Suite #101 Dublin, CA 94568</p> 
<p>HARMONY ACUPUNCTURE 석은경 아가다(Agatha Suk L.Ac) Tel 510-889-8062 917 C St. Hayward, CA 94541 www.harmony-acu.com harmonyacupuncture1@gmail.com</p>	<p> Dublin Pediatric Dentistry & Orthodontics 소아치과 교정 전문의 Elizabeth Jihyun Kim, DDS, MS 11920 Dublin Green Drive, Dublin, CA 94568 (925) 833-1900 smiles@dublinpdo.com www.dublinpdo.com</p>	<p>COMPASS REALTOR® 부동산  AIDEN KIM 에이튼 킴 (니콜라오) 부동산 925.389.2463 Aiden.kim@compass.com</p> <p>DR# 01983236  </p>	
<p>West Dublin PETSMART 한국어상담가능 수의사 임경택</p> <p></p> <p>6960 Amador Plaza Rd, Dublin 925-644-3114 DublinCA@petsmartvetservice.com</p>		<p>James Golf Class 어려운 골프 쉽게 쉽게! Instructor: 나정태(제임스) 925-434-2659 jrha.golf@gmail.com</p> <p>USGTF License #: 11512 </p>	<p> 하나비 스시 HANABI SUSHI 계상진 빈첸시오 조성아 데 레 사 927 Main Street A Pleasanton, CA 94566 Tel) 925-596-3645</p>



■ 성지가지 수거 안내

- 재의 수요일(3월 5일)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을 위해 지난해 가져가신 성지가지를 수거합니다.
- 기간·장소: 3월 2일(주일)까지·사무실

■ 2024년 봉헌금 증명서 발급 안내

- Tax 보고용 봉헌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사무데스크에서 신청서 작성 또는 이메일 (office@tvkcc.org) 신청 시 등록번호, 발급대상 영문이름, 전년도 주일헌금(본인 추정 금액) 기재

■ 2월 반모임 일정(www.tvkcc.org/2025cellmeeting)

루카 3반	2/16 (일) 12:00PM	Room B	720 971 7256
루카 7반	2/22 (토) 12:30PM	Room A	925 324 6076
마태 3반	2/22 (토) 05:00PM	Room A	925 922 7489
마태 5반	2/22 (토) 08:00PM	Room A	949 838 5041

■ 오대석 바오로 신부님 부임 안내

- 춘천교구 상반기 정기 인사 발령에 따라 오대석 바오로 신부님께서 우리 본당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오대석 바오로 신부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부임 미사: 2월 23일(주일), 오전 9시 30분

■ 2월 주요 전례 일정

- 2월 16일(주일): 김현국 요한사도 신부님 송별 미사 (오전 9시)
- 2월 18일(화), 20일(목), 21일(금): 평일미사 없음
- 2월 23일(주일): 오대석 바오로 신부님 부임 미사

■ 김현국 요한사도 신부님 환송회

- 일시: 2월 16일(주일), 오전 11시 - 오후 2시
- 장소: 체육관 (JP2)
- 신자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성 가브리엘 복사단 및 부모 모임

- 일시: 2월 23일(주일), 오후 12시 - 1시
- 장소: Room A, B

■ 미사 예물 봉헌 관련 변경 사항 안내

- 2월 23일(주일)부터 수표를 이용해 미사 예물을 봉헌하실 경우 오대석 신부님 성함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Check Payable to **DAE SEUK OH**

■ TVCS Bake Sale 모금 안내

- 지난주 TVCS Bake Sale을 통해 학생들이 총 \$678을 모금하였습니다. 모금된 금액은 LA 화재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지원금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 관심 가져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수표 작성 시 Payable to **Tri-Valley Korean Catholic Church**)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English Mass				
\$1702.07	\$243	\$6990	\$295	\$280	\$9510.07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 계상진(2), 김선기(1-3), 김성치(2), 김용재(2), 김홍락(2,3), 남석훈(2), 박종량(1,2), 배성준(1), 배정수(1-6), 오택만(11,12/24), 유창수(1,2), 윤혜숙(1,2), 이원숙(1-6), 이정미(1), 이종구(1,2), 이주하(2), 이희선(1,2), 이희열(2,3), 채성우(1-3), 최경선(1-12), 최원숙(2), 하창완(1)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 김선기(1-3), 김성치(2), 김홍락(2,3), 남석훈(2), 이종구(1,2), 이주하(2), 이희선(1,2), 이희열(2,3), 채성우(1-3), 최원숙(2), 하창완(1)

- Bishop's Appeal

- 김선기(1-3), 김성치(2), 김홍락(2,3), 남석훈(2), 이종구(1,2), 이주하(2), 이희선(1,2), 이희열(2,3), 채성우(1-3), 최원숙(2), 하창완(1)

- 건축봉헌금 김현국 신부님, 김선기

- LA 산불복구 지원금 \$200

- 간식봉헌 조경아 글라라 가정 / 권현정 안젤라 가정 / 이희선 마르첼라 가정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큐알코드 스캔하고

온라인 봉헌 페이지로 바로 가기

Scan To **Online Donate**

